

**5. 너는 마음을 다하여
여호와를 신뢰하고
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**

**6.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
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**

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III

최봉우 목사



**3:5-6 “너는 마음을 다하여
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
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
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
네 길을 지도하시리라.”**

**1.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
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.**

**5절 “너는 마음을 다하여
여호와를 신뢰하라.”**

"마음을 다하여" = "온 마음으로"

2.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.

5절 “네 명철을
의지하지 말라.”

“명철” : 문제를 분석하고,
무엇을 할 것인지
결정하는 지적 과정

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
우리의 명철의 불완전성을
알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명철은
결국 부분적인 도움밖에
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
것입니다. 우리가 전적으로
의지하고 기대야 할 분은
하나님이시라는 것을
강조하는 것입니다.

3.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.

6절 “너는 범사에
그를 인정하라”

**여기서 “인정하라”는 명령은
“알아라”라고 번역할 수도
있습니다.**

**NIV “범사에 그를 알라”
(all your ways
acknowledge him)**

**“모든 면에서 하나님을
친밀하게, 깊게, 개인적으로
알아야 합니다.
삶의 모든 방면에서
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,
그분은 당신의 길을
지도하실 것입니다.”**

**4.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
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십니다.**

6절 “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.”

**“그가 너의 길을 바르게
(평탄하게) 하시리라.”**

**(he will make your paths
straight, NIV)**

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III

AMEN CHURCH

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.

**“믿음은 이후에 돌아보아야만
이해할 수 있는 것을
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
믿는 것이다.” <필립 안시>**

“당신이 지금 모르는 이유는
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
만약 지금 당신이 알아야 했다면
알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모르는
것을 보니 알 필요가 없는 것
입니다. 왜냐하면 **알아야 할 때가
되면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.**
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,
그것이 틀림없습니다.”

우리는 공식을 원하지만
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다

**“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
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
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십니다.
그러므로 옳은 질문은
'어디로 가야 하느냐'가 아니라
'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
되어야 하느냐'는 것입니다.”**

우리편에서는 하나님의 편을
다 볼 수가 없습니다. 때론
우리편에서는 문제만 보입니다.
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
친밀히 그 분과 교제하면
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씩
인도하십니다. 그 여정이
끝났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

“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. 하지만 한 가지는 알지.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어.”라고 고백할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현재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더 알아 가는 것입니다.